

## 국가발전을 위한



LG - EDS 시스템  
대표이사 김 범 수

한국의 OECD가입이 확정되었다. 5.16 직후 미국 케네디대통령이 “한국은 가망없다”라고 말한지 30년이 조금 넘어 선진국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늦어져 열강의 수탈대상으로 고역을 치르고, 이제 우리는 세계역사에서 가장 빠르고 경이적인 성장을 이뤄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업적은 산업사회의 끝자락에서 만들어낸 성과에 불과하다. 산업사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질주를 하려는 자리에 와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또다른 세기적 변화에 접어들었다.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다 준 정보사회로의 진입이다.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물물교환이라는 형태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한 지역에서의 물리적 이동을 위해 나아가 보다 넓은 지역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낙타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았다. 또 산업사회의 발달과 기술발전이 힘입어 이같은 노력은 육상을 벗어나 바다와 하늘의 새로운 통로를 열기 위한 시도로 이어졌다. 이제 정보화시대는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르고 그 효과와 파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도로의 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과 공간을 기본 제약으로 인정하고 추진해온 인류에게 처음으로 3차원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와 이를 잇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인프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14일 김영삼대통령은 정보강국을 향한 제3의 개혁조치로서 정보화 전략을 발표했다. 그 목표는 첫째가 정보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누적된 비효율 요소를 개선하고 정보산업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삶의 질 개선, 세번째는 정부의 생산성 제고, 마지막으로 정보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정보화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올린다는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지만 그래도 국가의 최고경영자가 이같은 선언을 통해 각 국가기관과 기업의 정보화를 자극하고 실제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효과가 나타난다면 매우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

# 정보인프라

미국은 이미 클린턴-고어 행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부터 정보고속도로에 대해 강조했으며 그 영향력은 곧바로 EU, 일본, 싱가포르등으로 퍼져 그 성과가 상당한 수준까지 나타난 실정이다.

우리도 '97년까지 전국 80개 도시를 연결하는 광통신망을 구축하고 CATV망을 초고속통신망으로 활용하는 지역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5년까지는 전국의 도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망 구축이 완성단계에 이를 예정인데 2단계 작업이 끝나는 2002년 정도만 되어도 국민들의 생활속에서 이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를 실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출발은 늦었지만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변화된 21세기에 접어들면 초고속통신망이 20세기의 도로와 철도, 항공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바탕위에서 국가와, 기업, 개개인은 21세기의 문을 남보다 빨리 열게 되고 풍요롭게 질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인간의 습성은 기술보다 천천히 변화한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정보기술 적용의 지연으로 우리의 생활과 산업과 국가행정을 변화시키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구한말의 쇠국은 국가발전의 문까지 닫아버렸다. 오늘날 새로운 세기로의 진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층에서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변화된 세계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지 못한다면 한국은 또 다른 쇠국에 따른 불행한 결과로 후손의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산업화가 늦어졌기 때문에 부담해야 했던 후진국의 짐을 이제 새로운 세기에까지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시대에 조금만 마인드를 바꾸면 가능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전보다 더욱 고삐를 당길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과 미국간의 해저케이블을 처음 깔던 어려움에 비하면 훨씬 쉽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실로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